

<마을자치 문화유산인 제주 향약에 관한 연구> 토론문

김순임 / 제주대학교 강사

먼저 발표문을 작성해주신 발표자께 미처 생각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자 우리 삶 속에 함께 해오고 있던 제주의 향약을 현대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소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향약은 조선시대의 유산이라고만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글을 접하고 보니 우리 생활 속에 늘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더불어 이처럼 이 분야에 문외한인 제가 감히 토론을 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다만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전공자 입장에서 혹시 놓치고 있을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을자치 문화유산인 제주 향약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만으로 보면 문화유산과 향약에 대한 연구인지, 마을자치와 향약에 관한 연구인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글의 내용을 보면 후자인데, 그렇다면 문화유산을 제목에까지 넣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만약 넣는다면 이해를 돕기 위해 문화유산과 향약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마을자치와 향약에 대한 연구라면 역시 ‘마을자치’와 ‘향약’에 대한 개념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론에서 아주 간략히 언급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날의 마을자치와 향약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조선시대와 현대가 바로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지금의 향약은 조선시대의 자치규약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사라졌다가 새로 만들어진 것인지, 제주 향약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육지부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간단하나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향약이 제주에서 시내 중심동은 사라지고 외곽동과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보존되고 활용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향약이 있는 곳과 없는 곳 두 지역의 마을자치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와 함께 현재 행정리의 운영체계는 완전히 향약에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으로부터 보조금이나 법적인 부분이 개입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셋째, 향약이 주민들 스스로의 약속인 마을자치 규약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개입해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서론에서 향약을 분석하여 마을주민과 이주민들이 마을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하셨고, 결론적으로 리민의 자격, 권리, 의무를 확대하기 위해서 향약 내용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께서도 밝힌 것처럼 향약은 오랜 세월 시대 상황과 마을 수준에 맞게 변화와 개정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마을마다 향약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 마을주민의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마을은 20년 걸리는 곳도 있고, 마을리장의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30년이 걸리는 곳도 있다며 그건 아닌 거

같으니 바꾸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표문에서도 밝혔듯이 마을에서 조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다고 하는데 외부 연구자의, 혹은 행정의 관여를 받아들이기는 할지에 대한 의문도 생깁니다. 또한 발표자께서는 국가 운영형태와 마을자치를 같은 개념이라고 하셨는데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과 마을이라는 최소단위를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더더욱 개입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한 나라의 국가 운영형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외부에서 개입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발표문에서 제시한 이런 접근법은 마을자치라는 본래 취지보다는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발표자께서 밝히고 있듯이 마을자치는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민주주의의 한 형태라고 하였습니다. 시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마찰이 생기는 것도 당연하며, 모든 마을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 흐름과 함께 제주로의 이주 열풍으로 제주 마을의 원형은 변화를 불가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백년간 그래왔듯이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해 마을 자체적으로 시간을 두고 서서히 변화에 적응해 가는 방식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주민과 주민들과의 마찰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이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향약이라는 마을자치 규약을 외부의 개입으로 바꾸기보다는 마을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려는 이주민들의 노력과 이들을 받아들이려는 원주민들의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노력은 마을 내에서 원주민과 이주민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서로에게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이주민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원래 존재하고 있던 커뮤니티에 외부에서 들어와서 섞이기 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외부인이 마을공동체에 합류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그 또한 존중해줘야 할 것입니다. 만약 마을의 향약으로 인해 마을자치에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면 향약을 수정할 것을 권고하기보다는 타 지역 혹은 해외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방식을 제안합니다.

현대사회는 다방면에 걸쳐 갈수록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다양성을 존중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에서조차 아주 오래전부터 동서남북의 마을의 성향이 다르고 심지어 언어, 풍습마저 달랐습니다. 기후환경과 사회환경이 다르고 역사적 경험이 다르다 보니 이런 차이는 당연할 것입니다. 마을의 자치규약인 향약은 오랜 세월 그 지역에 맞게 변화하고 적용되어 오면서 지금에 이르렀고, 향약을 문화유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발표문은 마을자치 운영지침으로서의 향약에 대한 설명에 치중하고 있어서 행정 편의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향약이 마을에서 차지하고 있는 오랜 세월의 무게를 좀 더 고려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거의 다뤄지지 않았던 마을자치와 향약을 연결시킨 연구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앞으로 계승 발전시켜나간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의의가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유산으로서의 향약에 대한 접근도 좋은 연구주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다양한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주 해녀문화유산은 이미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돌담, 제주어 등 우리가 바로 떠올릴 수 있는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제주가 아닌 타 지역의 향약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일본 전역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해녀문화가 제주의 해녀문화로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처럼 제주의 향약이 세계적으로 제주의 고유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자치와 향약의 연구와 관련해서 덧붙인다면, 제가 향약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조사를 좀 해보았는데, 주지하다시피 원래 조선시대 향약은 중국 북송의 여씨향약에서 비롯되어 주자학과 함께 조선과 베트남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여서 아무래도 한국처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마을단위에서는 향약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향약에 대한 연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재 베트남 지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향약을 토대로 마을자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향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자면 발표문에서는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이주민만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주민들 중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여성 이주민들입니다. 현재 제주도에 들어와 있는 많은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여성들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 역시 도시 중심동이 아닌 외곽동과 읍면리 지역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제주사회에 적응하기를 원할 뿐 그들이 원래 삶을 영위했던 지역의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뿐더러 아직 그 단계에까지는 한참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발표자께서 마을자치와 향약을 연구하시니 향후 베트남의 향약을 연구하셔서 제주 향약과 접목시킨다면 다문화가정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을자치에 보다 다양한 시각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지방분권화가 진행되고 있는 시대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류인 마을자치는 지방민주주의의 기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해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발표문을 접하고 나서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시행되어오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자치도인 제주에서 마을자치의 원형인 향약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 많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두서없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